

‘VNL 강등’ 女 배구 대표팀,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출격 준비

〈발리볼네이션스리그〉

오늘 재소집…12일부터 일본·프랑스·체코·스웨덴·아르헨티나와 경쟁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잔류에 실패한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이 삼기일전해 국제대회 출격을 준비한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3일 인천선수촌에 재소집돼 다음 달 12일부터 17일까지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 참가를 앞두고 담금질한다.

VNL에서 1승 11패의 참담한 성적으로 최하위(18위)로 밀려 잔류에 실패한 여자 대표팀으로선 올해 마지막 국제대회다.

코리아인비테이셔널에는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 대부분이 1진급 선수를 파견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룰 좋은 기회다.

내년 아시안나고아·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던 여자 대표팀으로선 당장 내년부터 VNL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세계적인 선수들과 맞붙을 기회가 거의 없다.

올해 VNL에서 이탈리아와 브라질에 이어 3위(9승 3패)에 오르며 8강이 겨루는 토너먼트에 진출한 일본은 당초 2진급 선수를 보내려던 계획을 바꿔 1진급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이 보낸 20명의 예비 선수 명단에는 VNL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대표팀은 VNL에서 일본과 맞붙어 0-3 완패를 당했다.

일본과 함께 VNL에 참가했던 프랑스와 체코도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초청팀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한국 여자팀 사령탑을 역임한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프랑스에 0-3으로 졌다.

또 세계랭킹 13위인 체코와도 VNL에서 폴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2-3으로 역전패했다.

코리아인비테이셔널에선 6개 참가팀이 풀리그를 펼쳐 우승팀을 가린다.

우리나라는 다음 달 12일 아르헨티나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프랑스(13일), 스웨덴(15일), 일본(16일), 체코(17일)와 차례로 맞붙을 예정이다.

대표팀은 VNL 3주 차 경기에 참여했던 미들블로커 김세빈과 세터 김다은(이상 한국도로공사),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GS칼텍스)가 21세 이하(U-21) 세계여자선수권 대표팀에 합류함에 따라 김세빈 대체 선수로 박은진(정관장)을 차출해 14명으로 코리아인비테이셔널에 나선다.

특히 ‘2+1년’ 계약을 한 모랄레스 감독은 이번 대회 종료 후 1년 계약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재신임 평가를 받는 만큼 올해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팀이 지난 9일 일본 지바에서 열린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25-18 19-25 14-25 26-28) 역전 패배를 당했다.

/연합뉴스

미래 국대 꿈나무 발굴…대한배구협회, 디비전리그 출범

전국 432개 유소년 팀 참가

대한배구협회(KVA)가 ‘디비전리그’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디비전리그는 유소년 배구 선수들의 발굴과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2개 지역에서 초·중·고등부 학교스포츠클럽 그리고 유소년 배구클럽 등 432개 팀이 참가한다.

광주를 포함한 12개 지역에서 2025년 디비전리그가 운영되며, 2라운드 예선 뒤 4강전과 결승전이 진행된다.

각종 문화 행사와 연계한 챔피언십 대회와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이다.

협회는 생활체육 유소년 선수들이 배구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배구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2025년 V3(생활-시도) 부문을 시작으로 V4(생활-시군구·2028년), V2(생활-광역시·2030

년), V1(전문-전국·2032년) 순으로 디비전리그를 확장할 방침이다.

오한남 대한배구협회 회장은 “2022년부터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불균형과 학령 인구 감소로 전문체육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배구 디비전 사업을 준비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협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9개 리그와 대전, 부산 그리고 광주에서 리그를 개최하게 됐다”고 디비전리그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8월 9일과 10일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예선 라운드가 열린다. 경기는 남녀 12세이하부,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결승전은 9월 6일 북구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연임’ 차단…대한체육회장 직선제 도입 박차

9월 중 공청회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4월 선거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대년·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를 발족시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육회는 4월 이사회 때 회장·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했던 것. 이어 회장 선거에서 체육회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4일 진행된 제42대 회장 선거 때 대의원 2244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던 ‘간접 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게 회장 선거제 개혁의 기본적 목표다.

이에 따라 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구성원(경기인, 대의원, 임직원)에게 ‘1인 1표’를 주는 직선제의 대원칙을 설정했다.

제42대 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모집단 규모인 32만8000명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체육회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려고 공개 입찰을 거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선거제도 개선’ 용역을 맡겼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게 체육회의 구상이다.

직선제 도입 방향을 정했지만, 보완할 내용이 적지 않다.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구성원에게 각 한표를 주는 게 목표이지만, 개인 정보가 다르거나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표권을 줄지와 종목 단체별 등록 경기인 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다.

이와 함께 직접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투표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보완할 사항이다.

체육회는 개선안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중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체육회는 공청회까지 거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시체육회, 전국배구대회 ‘동반우승’ 조선대·광주여대 격려금 전달

광주시체육회가 전국배구대회에서 ‘동반우승’을 이룬 조선대와 광주여대 배구단을 초청해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22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체육회장, 박성필 조선대 감독, 최성우 광주여대 감독 등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 동반 우승 기념 격려금 전달식을 열었다.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지난 3일 끝난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나란히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강호’ 인하대와 폴세트 접전 끝에 3-2(21-25 25-20 25-17 23-25 19-17) 역전 우승을 이뤘다. 창단 55년 만에 이룬 우승이다.

광주여대는 경일대를 상대로 3-0(25-23 26-24 32-30) 셧아웃 승리를 거두고 창단 3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와 함께 조선대와 광주여대는 광주소속팀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이뤘다.

또 조선대 송수환(2년)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윤건우(1년)가 리베로상, 박인우(4년)가 세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앞줄 가운데)과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동반우승을 이룬 조선대·광주여대 배구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터상, 심준호(2년)가 블로킹상을 받았다. 우승을 이끈 김나현(3년)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손은진(3년)이 세터상, 박유리(3년)가 리

베로상, 김연화(2년)가 블로킹상 주인공이 됐다. 광주여대 최성우 감독은 최우수지도자로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또진서’ 신진서, GS칼텍스배 6번째 우승

역대 최다 우승 기록

신진서 9단이 GS칼텍스배에서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신진서는 22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0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 3국에서 안성준 9단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종합 전적 3-0으로 안성준을 꺾은 신진서는 GS칼텍스배에서 여섯 번째(23~27기·30기) 우승컵을 차지하며 이창호 9단이 보유했던 5회 우승을 넘어 역대 최다우승 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신진서는 국내외 대회를 합해 42번째 타이

틀을 획득했다.

한국랭킹 1위인 신진서는 랭킹 5위 안성준을 상대로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15전 전승을 기록하며 ‘전적’으로 군림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안성준은 이번 대회 16강에서 신진서에게 패해 패자조로 밀려났었다.

패자조에서는 랭킹 2-5위 박정환·강동윤·변상일·이지현(대국 당시 랭킹 기준) 9단 등 상위 랭커를 잇달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신진서의 벽을 넘지 못했다.

GS칼텍스배 우승 상금은 7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3000만원이다. 제한 시간은 시간누적(피서) 방식으로 각자 30분에 추가시간 30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

일시 : 2025-07-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Flute'

일시 : 2025-08-22(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